

# 정부 CT연구원 기능 축소하나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정부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에 광주 설립이 명시돼 있는 CT(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의 설립을 장기과제로 미룬 데 이어 그 기능과 역할을 축소할 방침이어서 광주 문화수도 조성사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24일 민주당 조영택 의원(광주 서구갑)에 따르면 지난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예산심의를 통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CT연구원 설립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CT연구원 설치 어렵다”며 “시급히 해야 한다”며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아시아문화개발원을 설립해 CT연구원의 기능을 수행토록 하는 방안

“조기설립 어려워... 문화개발원에 역할 맡길 수도”

유인촌 문광, 국회 문방위 내년도 예산 질의 답변

을 검토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는 광주에 독립된 CT연구원을 설립하는 대신, 광주 아시아문화전당에 들어설 아시아문화개발원에 센터를 두고 CT연구원의 R&D 기능을 수행토록 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축소하려는 의도로 받아들여져 논란이 예상된다.

CT연구원이 현재 건립 중인 광주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핵심 문화 인프라로, 연구원의 광주 설립이 무

산될 경우 광주 문화수도가 문화산업이 실종된 ‘빈껍데기’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진다.

시는 CT연구원이 아시아 문화전당의 취약한 부문인 문화콘텐츠 연구·개발·상용화를 담당할 기관이라는 점에서 조기건립을 정부에 꾸준히 촉구해왔다.

또 CT연구원은 혁신도시로 이전할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문화기관과 연

계해 문화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R&D센터로 주목받고 있는 기관이기도 하다.

조영택 의원은 “당초 계획에 따라 국책 연구기관으로서 CT연구원 설립 예산을 내년도에 일부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해 유 장관으로부터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며 “정부의 약속인 CT연구원은 반드시 광주에 건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광부는 최근 예비타당성 연구 용역을 중단하고 CT연구원 설립계획을 담은 ‘문화기술 R&D역량 강화 종합방안’을 2단계 중장기 과제로 넘겨 광주 지역의 반발을 사고 있다. /윤영기자 penfoot@



정지 장군 사당 준공·제향 행사 '경열공 정지 장군 사당 준공식 및 제향행사'가 24일 광주시 북구 망월동 경열사에서 유족을 비롯한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1347년 나주에서 출생한 경열공은 1377년 순천병마사로 부임, 왜구를 소탕했다. /위키향가자 jrvi@kwangju.co.kr

## 광주~나주 자전거 전용도로 생긴다

남구, 승촌 신가교~대촌 사거리 4.9km 개설 예정

광주와 나주를 잇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개설된다. 남구 남구는 24일 행정안전부의 '2010년 자전거도로 사업계획'에 승촌 신가교~대촌 사거리 구간이 선전돼 국비 17억원과 시비 8억6천

만원을 확보함으로써 광주와 남구를 연결하는 자전거 도로가 개설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구는 여기에 구비 8억 6천만원을 포함, 내년에 총 34억원을 투입해 4.9km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

치한다는 계획이다.

남구는 나주와 경계지점인 신가교부터 나주시 구간은 설계착업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업은 2019년까지 10년 동안 장기 계획으로 진행되는 행안부의 전국 자전거 네트워크 구축 사업의 하나, 남구 구간이 우선 사업지역으로 선정된 것은 광주와

나주를 연결하는 주요 길목이기 때문이다.

남구 관계자는 “행안부의 사업계획에 남구 계획 구간과 연결되는 나주시 구간도 포함돼 있는 만큼 광주와 나주를 자전거로 여행하는 것이 현실로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구는 저탄소 녹색성장과 자전거타기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10월 대촌동에 연장 19.7km의 ‘생생하이킹로’를 개설했으며, 구청 내에 무료 자전거 수리 센터를 운영하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정가 라운지

정찬용 前수석 출판기념회

정두언, 대학 사무처장 특강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은 24일 오후 광주 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정찬용의 도전’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임재정 전 국회의장과 이해찬 전 총리, 박주선·안희정 민주당 최고위원, 김재균·조영택 의원, 양형일 전 의원, 정동채·김두관·김화중 전 장관,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등 정·관계 인사 5천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서울 서대문을)은 26일 광주 라마다 플라자호텔에서 전국 대학 사무처장들을 대상으로 특별강연 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인 정 의원은 이날부터 28일까지 열리는 ‘전국 대학교 사무·총무·관리·재무처장 협의회(회장 송경웅 동신대 사무처장) 2009 동계 세미나’에서 ‘대학 정책 방향’을 주제로 강연한다.

/박정욱기자 jwpark@

## 美 “북미대화서 평화협정 논의 안해”

6자회담 재개에 모든 에너지·관심 집중

미국 국무부는 23일(현지시간) 북미 양자회담을 앞둔 북한이 노동신문을 통해 ‘평화보장 체계’ 수립을 촉구한 데 대해 북미 양자대화의 목적은 이 대화의 의제가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런 켈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 자리에서 북한 노동신문의 주장에 대한 의견을 묻자 “우리는 6자회담 재개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모든 에너지와 관심을 여기에 쏟을 계획”이며 “이것이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 목적”이라고 말했다.

켈리 대변인은 이어 “보즈워스 대

표의 방북시에 (평화협정과 같은) 그런 문제를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평화협정 문제는 6자회담에서 이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그룹이 이미 구성돼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선 첫 번째로 원하는 것은 6자회담의 재개”라고 거듭 강조했다. 켈리 대변인은 6자회담 관련국들에 대한 보즈워스 대표의 방북 결과 설명과 관련, “보즈워스 대표는 이번에서 올, 평양, 도쿄, 베이징, 모스크바를 모두 방문할 계획”이라며 “하지만 어떤 순서로 방문할 것인지 보즈워스 대표의 구체적인 세부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남스

## 삼호지구, 탄소제로 시범도시로 개발

태양열 등 청정에너지 생산, 친환경 대중교통 확대

전남 J프로젝트(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6개 개발 사업지구 가운데 한 곳인 삼호지구(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탄소제로 시범도시)로 개발된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탄소제로 생태문화 시범도시로 지정된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가 유시티(U-City) 체계 구축과 탄소제로 시범도시로 개발될 예정이다.

문광부는 이 가운데 최근 정부로부터 개발계획안을 최종 승인받아

본격적인 개발사업에 들어갈 예정인 영암군 삼호읍 삼호지구(919만6천㎡)를 우선 시범도시로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문광부는 최근 컴퓨터시스템 설계·자문 전문 업체인 (주)트루아위에 삼호지구의 유시티(U-City) 체계 구축과 탄소제로 시범도시 모델 적용에 대한 전략적인 컨설팅 업무를 맡겼다.

이에 따라 삼호지구는 태양열·풍력 등 청정에너지를 생산해 사용하고, 친환경 대중교통 확대와 풍부한

공원 녹지 확보 등을 통해 도시 전체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을 다른 도시 발생량의 30% 수준인 탄소제로 생태도시로 건설되게 된다.

우선 건축물 가이드 라인은 남향으로 배치해 지붕에 태양전지판을 설치·운영하고, 태양열 집열판을 설치해 온수를 사용하게 된다. 또한, 자전거·전기자동차 등 녹색 교통수단 사용화를 확대하고, 풍부한 공원녹지를 확보해 녹지공간의 네트워크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태양광 주택단지, 녹색에너지 생산단지, 옥상 및 벽면 녹화 등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전남에 ‘스포츠 의료관광 허브단지’

전남개발공사, 서울대 분당병원·화순 전남대병원 MOU

전남개발공사(사장 김주열)가 서울대 분당병원, 화순 전남대병원 등과 손잡고 의료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 의료관광 허브단지’ 개발에 나선다.

전남개발공사는 24일 전남도청에서 체결한 업무협약(MOU)에 따라 이들 대학병원과 스포츠 의료관광 허브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스포츠 의료 인력 및 정보의 교류 ▲연구기

능 및 서비스 개발 등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무안군 삼향면 남악신도시 오룡지구에 들어설 스포츠 의료관광 허브단지는 113만9천㎡부지에 총 사업비 3천여억원을 투입해 스포츠 메디컬 센터, 연구개발센터, 골프장, 콘도, 종합운동장, 의료산업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스포츠 의료관광 사업은 전남의 우수한 관광자원과 의료산업을 결

합해 국내환자는 물론 중국, 일본 등 외국 환자를 유치하는 사업으로 전남개발공사는 내년 상반기까지 민간보혐사 등과 함께 사업추진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스포츠 의료의 일반 관절, 근육질환 뿐만 아니라 당뇨, 고혈압, 심장병 등 심인병 치료에도 각광을 받고 있어 스포츠의학의 선도하는 미국 피츠버그 의대와 교류협력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주열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국내외의 최고 의료진과 지역이 가진 우수한 관광자원을 결합해 남의 스포츠의료 관광단지를 아시아의 의료 허브로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